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관련된 개인, 가족 및 학교환경변인 탐색*

Analysi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Bullying Behaviors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김연화
조교수 한세영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oun-Hwa Kim

Assistant Professor : Sae-Young H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We examined gender-specific behaviors in children and classified types of bullying behavior among 1,181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s students.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individual variables,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and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Furthermore the behavioral tendencies of those variables towards bullying were also investigated.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Ver 15.0). Results showed that tendency towards bullying was gender specific. Bullying behavior, reinforcing behavior, assistant behavior, and onlooking behavior in boys were influenced by individual factors only. However, defending behavior in boys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and school factors, while victimiz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In girls, onlooking behavior was only influenced by individual factors, while reinforc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Bullying behavior, defending behavior, assistant behavior, and victimizing behavior in girls were influenced by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주제어(Key Words) : 가해행동(bullying behavior), 강화행동(reinforcing behavior), 방어행동(defending behavior), 동조행동(assistant behavior), 피해행동(victimizing behavior), 방관행동(onlooking behavior), 또래괴롭힘(bullying)

Corresponding Author : Youn-Hwa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10 Seongbong-gu, Heungdu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10-2680-3511 Fax: +82-43-260-2793 E-mail: kyh3511@hanmail.net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최근 초등학교 입학안내서(교육청, 2008)에는 아동들의 ‘왕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왕따 즉, 또래괴롭힘의 대처법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또래괴롭힘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또래괴롭힘이 학교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영향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래괴롭힘은 힘이 우세한 한명이나 그 이상의 또래들이 힘이 약한 또래를 학대하는 행위로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괴롭힘 뿐 아니라 언어적인 괴롭힘과 타인을 통한 간접적인 괴롭힘도 포함할 수 있다(Björkqvist, Ekmanm, & Lagerspetz, 1982; Maeda, 2003; Olweus, 1993). 이렇듯 또래괴롭힘은 또래간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며 괴롭힘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어(Olweus, 1993) 공격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괴롭힘 현상의 실태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박경숙, 손희권, 1998; 이춘재, 박금주, 1999) 또래괴롭힘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나 원인의 규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들은 괴롭힘 아동과 관련된 한가지 요인(김길업, 심희옥, 2002; 김희화, 2001)이나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만 중점을 두거나(배아영, 이숙, 2006; 서미정, 2006; 이해경, 김혜원, 2001), 부모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도현심, 최미경, 1998; 박보경, 2002; 서미정, 김경연, 2004).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변인의 탐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가정과 또래 및 학교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또래괴롭힘 현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거나 일반아동, 가해아, 피해아 및 가해-피해아로 나누어 개인적, 환경적 영향 및 그들에 대한 비교연구들이다. 그러나 아동은 또래관계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서 가해행동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친구를 방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여러 유형의 또래괴롭힘 특성이 개인 내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래괴롭힘 행동의 다양한 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가해와 피해 및 일반아동의 행동 경향을 살펴본 연구(박미연, 2000; 박종원, 2005; 최용민, 이상주, 2003; Karatzias, Power, & Swanson, 2002; Rigby & Slee, 1993)에서 가해와 피해라는 상반된 성격의 괴롭힘 행동이 아동의 개인 내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가해와 피해행동의 경향성에만 국한

하여 살펴보아 또래괴롭힘의 다양한 행동경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아동의 내면에 공존할 수 있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다양한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참여하는 행동경향에 따라 가해경향성, 강화경향성, 방어경향성, 동조경향성, 피해경향성 및 방관경향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해경향성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의 정도를 의미하며, 강화경향성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동들을 지지해주어 그 행동을 더 부추기는 행동을 의미한다. 방어경향성은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돕거나 위로하는 행동이며, 동조경향성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도와주거나 함께 동참하는 행동을 말한다. 피해경향성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방관경향성은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모른 채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동의 경향이다. 이러한 또래괴롭힘의 행동경향성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개인적 요인의 차이를 넘어 가족환경, 또래 및 교사의 다양한 체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또래괴롭힘의 행동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개인변인으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또래압력, 수치심, 죄책감 및 감정이입을 살펴보았다. 충동성은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능동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가진 아동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Olweus, 1991), 괴롭힘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Bosworth & Espelage, 1999), 공격성이나 또래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또래괴롭힘에서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박미연, 2000; 이상균, 1999). 또한 자기조절능력은 문제행동이나 비행과 관련해 보호요인으로(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자기조절을 잘 하면 가해행동이 낮아진다고 보았다(조유진, 2006).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가해행위를 증가시키고 피해행위는 낮추는 역할을 하며(심희옥, 2002), 자존감이 낮을수록 또래괴롭힘의 피해가 증가하였다(김혜원, 이해경, 2000; 최용민, 이상주, 2003). 또한 가해나 일반집단에 비해 피해집단의 자아개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Brockenbrough, 2001) 반면 또래괴롭힘의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도 있었다.

또래압력은 또래들의 분위기를 통해 또래들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함께 하도록 강요받는 인식이나 느낌으로(Barkin, Smith, & DuRant, 2002; Bewley, Bland, & Harris, 1974), 아동 및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Barkin et

al., 2002; Best, Thomson, Santi, Smith, & Brown, 1988; Bewley et al., 1974). 도래괴롭힘 가해행동과 관련하여 도래 압력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 연구들(이희경, 2003;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에서 도래에게 압력을 많이 받거나 도래를 동조하는 성향이 높은 아동은 도래괴롭힘의 가해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수치심은 몹시 부끄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자의식적 정서(self conscious emotion)로(Lewis, 1971; Tangney & Dearing, 2002), 도래괴롭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자기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변보기, 강석기, 2002; 하영희, Edwards, 2004)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암시하며, 이는 수치심이 공격성의 예측요인임을 짐작하게 해준다(한세영, 2007). 죄책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고,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과 관련된 요인으로(한세영, 2007) 죄책감이 괴롭힘과 유의미한 관계에 대해 보고한 연구도 있다(Menesini, et al., 2003). 마지막으로 감정이입에 관련된 연구에서 감정이입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Krebs, 1975),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피해집단의 감정이입이 가해나 일반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rd, 2007). 또한 가해아의 감정이입이 가장 낮고, 방어자의 감정이입이 가장 높다고 하였고(Maeda, 2003), 방관자와 동조자는 피해아 방어자보다 공감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미정, 2006), 도래괴롭힘의 다양한 유형과 감정이입간의 관계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아동의 가족환경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온정/수용적, 거부/제재적, 방임적 양육행동과 부모지지 및 부모갈등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아동이 안정적이고 자신을 가치있게 여겨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서 도래로부터 인정을 받아 도래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Perry, Kusel, & Perry, 1988). 반면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고와 감정을 구속하고 통제하며, 강압적인 훈육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저해하게 되어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발달시키게 되고 도래괴롭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Finnegan, Hodges, & Perry, 1998). 국내연구들(도현심, 김선미, 2006; 서미정, 김경연, 2004)의 경우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방임적 양육행동이 가해 및 피해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괴롭힘을 많이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고한 아동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였고(장영애, 이영자, 2007),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도래괴롭힘의 가해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도현심, 김선미, 2006), 도래괴롭힘에 부정적으로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경남, 2001). 그러나 대부

분의 연구에서 남아와 여아를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도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았다. 또한 부모지지와 도래괴롭힘에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연구에서 가해집단은 피해집단보다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밝혀짐에 따라 부모의 지지가 도래괴롭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갈등은 도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주어, 부모가 갈등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도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이 증가하였다(박보경, 2002; 정은희, 이미숙, 2004). 가해와 피해집단 모두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남학생과 여학생의 피해집단은 부모갈등에 많이 노출되었고 특히 여학생의 가해집단도 부모갈등을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박보경, 한세영, 최미경, 도현심, 2004). 그러나 남아와 여아 모두 가해와 피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박보경, 2002)가 있는 반면 남아는 가해와 피해에 부적의 영향을 주지만, 여아는 피해에만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정은희, 이미숙, 2004)나 도래괴롭힘의 가해행동의 증가에만 영향을 준다는 연구(황은영, 2008)가 있어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교환경변인으로 우정의질,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를 살펴보았다. Boulton과 Underwood(1992)는 친구가 있는 것이 도래괴롭힘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국내연구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여학생들이 도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도현심, 2000), 우정의 질이 낮은 아동들이 도래괴롭힘의 피해가 증가하며, 친구의 질이 높은 아동들이 가해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신유림, 2007). 또한 괴롭힘의 피해아동은 친구관계의 질이 낮고, 가해아동은 질이 낮지 않았다(이은혜, 고윤주, 2004; 이춘재, 극광주, 1999; Carins, Carins, Neckerman, Gest, & Garipey, 1988).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피해와 가해행동의 특성만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행동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지지를 살펴보면,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으로(Germezy, 1993; Werner, 1989), 집단괴롭힘 목격경험이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의 지지가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난(조유진, 2006) 반면 교사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피해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도(김혜원, 이해경, 2000)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도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도래괴롭힘이 발생하는 연령이 하향화되어 아동기 중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Hoover, Oliver, & Thomson, 1993), 도래괴롭힘의 시기가 점점 빨라져, 초등학교의 도래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의 경험정도가 중학생에 비

해 높게 나타나 심각한 문제이다(이춘재, 곽금주, 1999;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 또한 또래관계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가해와 피해관계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지속되어 집단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행동패턴으로 내재화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입방안이 연구되어(Rigby, 1995; Sutton & Smith, 1999), 사회생활을 시작해가는 아동기에 개입하는 것이 가해-피해 경험을 사후에 측정하여 개입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김예성, 2000)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또래괴롭힘이 많이 보고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초등학교 5~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행동경향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성차에 대한 연구를 보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며(이해경, 김혜원, 2001; 최미경, 도현심, 2000; Boulton & Underwood, 1992; Gills & Ollendick, 2002), 남아는 신체적 공격 등의 직접적인 또래괴롭힘을 더 경험하고 여아는 또래관계에서 간접적인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Olweus, 1994)고 하여 또래괴롭힘에서의 성차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가해를 동조하거나 강화하는 역할 또는 방관하는 역할들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또래괴롭힘 유형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및 학교환경변인이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1-1.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아동의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1-2.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아동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1-3.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아동의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1-4.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아동의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1-5.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아동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1-6.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아동의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또래괴롭힘 유형과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에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1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확인하였고, 8명의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50분정도 집단면접을 실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에 C와 D시의 3개 초등학교 5~6학년 40개 반의 1,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로 가져가서 선생님들께 전달하였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 반의 담임선생님들 입실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주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한 후 설문지를 하였다. 질문지는 작성 후 모두 봉투에 넣어 아무도 열지 못하게 봉한 상태로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수거된 설문지는 총 1,220부였으며, 응답이 불확실한 1개반을 제외시켜 총 1,18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에 따른 행동경향성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에 따른 행동경향성은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이 사용한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을 괴롭힘과 혼동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를 척도에 제시하였다. 원래의 PRQ(Salmivalli et al., 1996)는 49문항으로 한명의 아동이 자신이 속한 반 친구들과를 모두 포함하여 각 문항에 해당되는 친구에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이 많아 아동이 응답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Salmivalli와 Voeten(2004)이 사용한 축약형인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괴롭힘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언어적·관계적인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측정하는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8문항을 아동 자신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래괴롭힘의 행동경향성은 가해, 강화, 방어, 동조, 피해 및 방관행동으로 구분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가해행동 .71, 강화행동 .69, 방어행동 .74,

동조행동 .70, 피해행동 .75, 방관행동 .70이다.

2) 개인변인

충동성은 Bosworth와 Espelage(1999)가 사용한 충동성 척도인 Barratt Impulsiveness Scale을 사용한 박미연(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5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순간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충동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이다. 자기조절능력은 Gresham과 Elliott(1990)가 개발한 SSRS(Social Skills Rating System)를 사용한 김윤경(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을 잘함을 의미한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95)의 Self-Esteem Scale을 변안한 도현심과 최미경(1998)의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고,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다. 또래압력은 Sanders(1983)가 제작한 TTQ(Tough Turf peer pressure Quiz)을 김주연(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24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두 요인으로 축약된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압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이다. 또한 수치심은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척도(Tangney & Dearing, 2002)에서 수치심에 관련된 5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한 한세영(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다. 죄책감은 Tangney와 Dearing(2002)이 사용한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을 수정, 변안하여 사용한 한세영(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다. 감정이입은 Bryant(1982)의 Empathy Scale를 연구자가 직접 변안하여 사용하였고,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22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요인부하량이 높은 11문항을 사용하였고,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이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3) 가족환경변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박영애(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척도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11문항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10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방임적 양육행동은 허모연(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요인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92,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86, 방임적 양육행동 .61이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주(1997)의 척도를 사용한 하영희(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총 4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다. 부모갈등 척도는 Straus(1979)가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s(CTS)를 변안하여 사용한 박보경(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갈등을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다.

4) 학교환경변인

우정의 질은 Sharabany(1994)의 Intimate Friendship Scale를 본 연구자가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원래의 32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2인과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15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같은 반에 있는 동성의 단짝친구를 1명만 선택하여, 그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성의 단짝친구와의 우정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인 아동이 지목한 아동이 다른 동성친구를 단짝친구로 지목해도 무관하며,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다. 친구의 지지는 아동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보여주는 지지를 말하며,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주(1997)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하영희(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고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다. 교사의 지지는 이경주(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하영희(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4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형별 행동경향성에 대한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연구대상자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남아가 51.4%, 여아가 48.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5학년 51.7%, 6학년 48.3%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은 각각 41~44세가 46.5%, 53.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52.2%,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51.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어머니의 43.2%가 전업주부라고 하였으며, 아버지는 사무직이 44.5%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성적은 '아주 잘한다'고 지각한 아동은 36.6%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라고 지각한 아동이 32.9%였다. 아동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46.3%였고 '비교적 잘 산다'가 42.1%로 나타났다.

2.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변인들이 또래괴롭힘의

행동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각각의 행동경향성과 변인들간의 공선성 진단결과, VIF가 남학생 1.11~2.89, 여학생 1.11~3.3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괴롭힘 각각의 행동경향성과 각 변인들의 남학생 상관관계는 .09~.67이고, 여학생 상관관계는 .09~.75였으며,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관계가 남학생 .67과 여학생 .75로 다소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척도(Tangney & Dearing, 2002)로, 독립된 하위척도로 검증된 측정도구이므로 독립적인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1)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학생의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1단계에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표 1>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 607명/여아 574명

| 아동의 가해경향성 변인 | 1 단계 표준화계수 β | | 2 단계 표준화계수 β | | 3 단계 표준화계수 β | | |
|--------------------|-----------------|----------|-----------------|----------|-----------------|----------|---------|
|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
| 개인 변인 | 충동성 | .25*** | .26*** | .26*** | .23*** | .25*** | .20*** |
| | 자기조절능력 | -.08* | -.06 | -.09* | -.07 | -.09* | -.07 |
| | 자아존중감 | .00 | .02 | .01 | .03 | .01 | .04 |
| | 또래압력 | .01 | .02 | -.01 | -.00 | -.02 | -.00 |
| | 수치심 | .22*** | .13 | .21** | .11 | .21** | .12 |
| | 죄책감 | -.01 | .12* | .01 | .12* | -.02 | .11* |
| | 감정이입 | -.26*** | -.29*** | -.25*** | -.27*** | -.25*** | -.26*** |
| 가족 환경 변인 |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 .07 | .08 | .08 | .11* | |
| | 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 .00 | .07 | .00 | .08 | |
| |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 .05 | .14** | .05 | .13** | |
| | 부모지지 | | -.04 | -.03 | .04 | .08 | |
| | 부모갈등 | | .08 | .06 | .08 | .06 | |
| 학교 환경 변인 | 우정의 질 | | | | .04 | .08 | |
| | 친구지지 | | | | .02 | -.18** | |
| | 교사지지 | | | | -.05 | -.07 | |
| ΔR ² | .24 | .27 | .01 | .00 | .00 | .02 | |
| R ² | .24 | .27 | .25 | .29 | .25 | .31 | |
| 수정된 R ² | .23 | .26 | .23 | .28 | .23 | .29 | |
| F | 23.39*** | 27.05*** | 14.27*** | 17.78*** | 11.56*** | 15.44*** | |

*p < .05. **p < .01. ***p < .001.

24%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2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 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차이를 보여 가해경향을 25%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해경향을 25%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충동성이 높고 자기조절을 잘 못하며, 수치심을 많이 느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가해경향성에는 1단계에서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7%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해경향을 29%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 개인변인 중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 중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방임적 양육행동 및 학교환경 중 친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해경향을 31%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충동성이 높고 죄책감을 조금 느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은 경우와 어머니에게 온정적이고 한편으로는 방임적인 양육을 받는다고

인식하며, 친구의 지지가 낮은 여학생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이 높아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가해경향성에 남학생은 개인변인 중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및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여학생은 개인변인 중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의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및 학교환경변인의 친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2)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충동성,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8%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2단계에서는 충동성, 감정이입이 차이를 보여 강화경향을 19%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 충동성,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강화경향을 19%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충동성이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은 남학생의 경우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강화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표 2>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 607명/여아 574명

| 아동의 강화경향성 변인 | 1 단계 표준화계수 β | | 2 단계 표준화계수 β | | 3 단계 표준화계수 β | | |
|-----------------|-----------------|----------|-----------------|----------|-----------------|----------|---------|
|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
| 개인 변인 | 충동성 | .25*** | .23*** | .25*** | .20*** | .24*** | .20*** |
| | 자기조절능력 | -.06 | .01 | -.07 | .01 | -.07 | .02 |
| | 자아존중감 | .02 | .08 | .02 | .08 | .03 | .09 |
| | 또래압력 | .06 | .13** | .05 | .11* | .06 | .11* |
| | 수치심 | .09 | .14* | .09 | .12 | .09 | .12 |
| | 죄책감 | .03 | .06 | .03 | .06 | .03 | .06 |
| | 감정이입 | -.24*** | -.31*** | -.23*** | -.29*** | -.23*** | -.27*** |
| 가족 환경 변인 |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 | .03 | .05 | .03 | .06 |
| | 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 | .01 | .08 | .00 | .09 |
| |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 | .08 | .12** | .08 | .12** |
| | 부모지지 | | | .02 | .01 | .02 | .08 |
| | 부모갈등 | | | .05 | .04 | .05 | .04 |
| 학교 환경 변인 | 우정의 질 | | | | | .01 | -.01 |
| | 친구지지 | | | | | -.06 | -.08 |
| | 교사지지 | | | | | .00 | -.06 |
| ΔR^2 | .18 | .22 | .01 | .02 | .00 | .00 | |
| R^2 | .18 | .22 | .19 | .24 | .19 | .24 | |
| 수정된 R^2 | .17 | .21 | .17 | .22 | .17 | .22 | |
| F | 16.65*** | 20.92*** | 10.17*** | 13.43*** | 8.27*** | 11.09*** | |

* $p < .05$. ** $p < .01$. *** $p < .001$.

결과이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충동성, 또래압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2%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2단계에서는 개인변인 중 충동성, 또래압력, 감정이입과 가족환경 변인 중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차이를 보여 강화경향을 24%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 개인변인 중 충동성, 또래압력,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 중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강화경향을 24%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충동성이 높고 또래에게 압력을 잘 받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고 어머니가 방임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지각하는 여학생의 경우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강화경향성이 높아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또래괴롭힘의 강화경향성에 남학생은 개인변인인 충동성과 감정이입만이 유의하였으며, 여학생은 개인변인의 충동성, 또래압력 및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를 수 있다.

3)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3>에 의하면, 1단계에서 자기조절능력,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18%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2단계에서는 자기조절능력, 감정이입이 방어경향성을 19% 설명해 주었고, 3단계에서는 개인변인 중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감정이입과 학교환경변인 중 교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방어경향을 22%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옳지 못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남학생들은 피해이들을 방어해주는 행동을 많이 보여준다는 결과이다.

<표 3>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 607명/여아 574명

| 아동의 방어경향성 변인 | 1 단계 표준화계수 β | | 2 단계 표준화계수 β | | 3 단계 표준화계수 β | | |
|-----------------|-----------------|----------|-----------------|----------|-----------------|----------|--------|
|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
| 개인 변인 | 충동성 | .03 | -.07 | .04 | -.10 | .04 | -.10* |
| | 자기조절능력 | .16*** | .11** | .14** | .11* | .11* | .09* |
| | 자아존중감 | .08 | .04 | .07 | .03 | .04 | .02 |
| | 또래압력 | -.08 | -.12* | -.07 | -.14** | -.08 | -.14** |
| | 수치심 | .05 | .00 | .08 | .01 | .04 | .00 |
| | 죄책감 | .10 | .07 | .10 | .04 | .11* | .05 |
| | 감정이입 | .31*** | .38*** | .31*** | .37*** | .28*** | .35*** |
| 가족 환경 변인 |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 | .09 | .17** | .06 | .15** |
| | 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 | .01 | .18*** | -.01 | .17** |
| |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 | .05 | .00 | .06 | .00 |
| | 부모지지 | | | .02 | .01 | -.08 | -.10 |
| | 부모갈등 | | | -.03 | .05 | -.04 | .04 |
| 학교 환경 변인 | 우정의 질 | | | | | .08 | .03 |
| | 친구지지 | | | | | .01 | .14* |
| | 교사지지 | | | | | .18*** | .04 |
| ΔR^2 | .18 | .21 | .01 | .03 | .03 | .01 | |
| R^2 | .18 | .21 | .19 | .24 | .22 | .25 | |
| 수정된 R^2 | .17 | .20 | .17 | .22 | .20 | .23 | |
| F | 16.84*** | 20.08*** | 10.40*** | 13.41*** | 9.86*** | 11.37*** | |

* $p < .05$. ** $p < .01$. *** $p < .001$.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방어경향성은 1단계에서는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21%의 설명해 주었다. 2단계에서는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방어행동의 경향을 24%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및 학교환경변인인 친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방어경향을 25%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충동성이 낮으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또래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또한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과 함께 제재적인 양육을 하신다고 지각하며, 친구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여학생들이 방어행동을 많이 보여준다는 결과이다.

또래괴롭힘을 방어해주는 방어경향성에 남학생은 개인변인인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및 감정이입과 학교환경변인인 교사의 지지가 유의하며, 여학생은 개인변인인 충동성, 자기

조절능력, 또래압력 및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그리고 학교환경변인인 친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4)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4>에서 보듯이, 1단계에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도 충동성, 수치심, 감정이입이 차이를 보였고, 동조행동을 24% 설명해주었다. 3단계도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25%를 설명해 주었다. 이는 충동적 성향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낮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을수록 동조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4>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 607명/여아 574명

| 아동의 동조경향성 변인 |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
| | 표준화계수 β | | 표준화계수 β | | 표준화계수 β | |
|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 개인 변인 | | | | | | |
| 충동성 | .26*** | .24*** | .25*** | .20*** | .24*** | .18*** |
| 자기조절능력 | -.08* | -.10* | -.08 | -.09* | -.09* | -.11* |
| 자아존중감 | -.00 | .14* | .01 | .14* | -.01 | .13* |
| 또래압력 | .00 | -.05 | -.01 | -.07 | -.02 | -.07 |
| 수치심 | .20** | .16* | .19** | .13 | .19** | .14 |
| 죄책감 | -.01 | .16** | -.01 | .17** | -.01 | .15* |
| 감정이입 | -.26*** | -.29*** | -.25*** | -.27*** | -.27*** | -.27*** |
| 가족 환경 변인 | | | | | | |
|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 | -.05 | .06 | -.05 | .06 |
| 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 | .02 | .08 | .01 | .08 |
|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 | .04 | .12** | .04 | .11** |
| 부모지지 | | | .03 | .00 | -.01 | .10 |
| 부모갈등 | | | .05 | .08* | .06 | .09* |
| 학교 환경 변인 | | | | | | |
| 우정의 질 | | | | | .07 | .09* |
| 친구지지 | | | | | .06 | -.18** |
| 교사지지 | | | | | .04 | .02 |
| ΔR ² | .23 | .24 | .01 | .02 | .01 | .02 |
| R ² | .23 | .24 | .24 | .26 | .25 | .28 |
| 수정된 R ² | .22 | .23 | .22 | .25 | .23 | .26 |
| F | 22.86*** | 23.47*** | 13.83*** | 15.35*** | 11.51*** | 13.21*** |

*p < .05. **p < .01. ***p < .001.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동조경향성에는 1단계에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수치심, 죄책감,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4%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도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감정이입,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부모갈등이 차이를 보였고, 동조행동을 26% 설명해주었다. 3단계도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죄책감, 감정이입,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부모갈등, 우정의 질, 친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어 28%를 설명해 주었다. 이는 충동성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과 부모갈등을 많이 지각하며 단짝과의 우정의 질은 좋으나 친구들의 지지는 낮다고 지각하는 여학생은 동조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의 동조경향성에 남학생은 개인변인인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및 감정이입이, 여학생은 개인변인인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죄책감,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부모갈등, 학교

환경변인인 우정의 질과 친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5)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 또래압력, 수치심이 차이를 보였고 3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2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또래압력, 수치심과 가족환경변인인 부모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경향을 38%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또래압력, 수치심과 가족환경변인인 부모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3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충동성이 있고, 또래의 압력과 수치심을 잘 느끼며, 부모의 지지가 낮은 남학생은 피해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피해경향성에는 1단계에서 또래압력, 수치심이 차이를 보였고 23%의 설명력을 보

<표 5>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 607명/여아 574명

| 아동의 피해경향성 변인 | 1 단계 표준화계수 β | | 2 단계 표준화계수 β | | 3 단계 표준화계수 β | | |
|-----------------|-----------------|----------|-----------------|----------|-----------------|----------|--------|
|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
| 개인 변인 | 충동성 | .07 | .08 | .07 | .07 | .08 | .10* |
| | 자기조절능력 | -.01 | .01 | .04 | .02 | .04 | .04 |
| | 자아존중감 | -.13** | .03 | -.05 | .07 | -.06 | .06 |
| | 또래압력 | .13** | .10* | .11** | .07 | .11** | .07 |
| | 수치심 | .42*** | .39*** | .34*** | .37*** | .34*** | .38*** |
| | 죄책감 | -.08 | .02 | -.04 | .02 | -.03 | .02 |
| | 감정이입 | -.01 | -.04 | .03 | -.02 | .03 | -.03 |
| 가족 환경 변인 |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 | -.08 | .04 | -.09 | .01 |
| | 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 | .02 | .05 | .02 | .04 |
| |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 | .06 | .05 | .06 | .05 |
| | 부모지지 | | | -.22*** | -.14** | -.24*** | -.16** |
| | 부모갈등 | | | .00 | .02 | .00 | .01 |
| 학교 환경 변인 | 우정의 질 | | | | | .00 | -.15** |
| | 친구지지 | | | | | -.01 | .07 |
| | 교사지지 | | | | | .05 | .09* |
| ΔR^2 | .32 | .23 | .06 | .02 | .00 | .02 | |
| R^2 | .32 | .23 | .38 | .25 | .38 | .27 | |
| 수정된 R^2 | .32 | .22 | .37 | .23 | .37 | .25 | |
| F | 36.31*** | 22.03*** | 26.89*** | 14.28*** | 21.58*** | 12.69*** | |

* $p < .05$. ** $p < .01$. *** $p < .001$.

였다. 2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수치심과 가족환경변인인 부모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정도를 25%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충동성, 수치심, 가족환경변인인 부모지지, 학교환경변인인 우정의 질과 교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충동성이 있고, 수치심을 많이 느끼며, 친한 친구와의 우정의 질이 낮은 반면 교사의 지지가 있는 여학생의 피해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경향성에 남학생은 또래압력과 죄책감, 부모지지가 영향을 주었고, 여학생은 수치심, 부모지지, 우정의 질과 교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학교환경의 영향도 받음을 보여주었다.

6)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10%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 차이를 보여 설명력이 10%였다. 3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방관행동을 11% 설명해주었다.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충동적 성향이 있지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였고, 또래의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감정이입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관하는 행동의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방관경향성에는 1단계에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설명력은 10%였고, 2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이 차이를 보여 1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3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방관정도를 11% 설명해주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충동성은 있지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했으며, 또래의

〈표 6〉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아 607명/여아 574명

| 아동의 방관경향성 변인 | 1 단계 표준화계수 β | | 2 단계 표준화계수 β | | 3 단계 표준화계수 β | | |
|-----------------|-----------------|---------|-----------------|---------|-----------------|---------|---------|
|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
| 개인 변인 | 충동성 | .16** | .18*** | .15** | .19*** | .15** | .20*** |
| | 자기조절능력 | .17*** | .17*** | .18*** | .18*** | .18*** | .19*** |
| | 자아존중감 | -.05 | -.01 | -.04 | .00 | -.03 | .01 |
| | 또래압력 | .15** | .20*** | .15** | .20*** | .15** | .20*** |
| | 수치심 | -.02 | .03 | -.04 | .02 | -.03 | .02 |
| | 죄책감 | .04 | .00 | .04 | .01 | .04 | .01 |
| | 감정이입 | -.15*** | -.06 | -.14** | -.06 | -.13** | -.05 |
| 가족 환경 변인 | 어머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 | .02 | -.03 | .04 | -.02 |
| | 어머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 | .05 | -.01 | .06 | -.01 |
| |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 | | .04 | -.01 | .04 | -.01 |
| | 부모지지 | | | -.03 | -.03 | .01 | -.04 |
| | 부모갈등 | | | .01 | -.04 | .01 | -.04 |
| 학교 환경 변인 | 우정의 질 | | | | | -.04 | -.06 |
| | 친구지지 | | | | | -.08 | .05 |
| | 교사지지 | | | | | -.07 | -.05 |
| | ΔR^2 | .10 | .10 | .00 | .00 | .01 | .01 |
| | R^2 | .10 | .10 | .10 | .10 | .11 | .11 |
| | 수정된 R^2 | .09 | .09 | .08 | .08 | .09 | .08 |
| | F | 8.16*** | 8.35*** | 4.96*** | 4.94*** | 4.39*** | 4.14*** |

** $p < .01$. *** $p < .001$.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여학생들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관하는 경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방관적인 행동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개인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1,181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아동의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개인변인을 1단계로 하여 가족환경변인을 2단계에 투입하고 학교환경변인을 3단계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성에 따라 1단계에 개인변인인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또래압력, 수치심, 죄책감 및 감정이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2단계는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방임적 양육행동, 부모지지 및 부모갈등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또한 3단계에서 학교환경변인인 우정의 질,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를 추가하여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참여하는 행동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가해경향성에는 개인변인만 영향을 주었고, 그 중에서 충동성과 감정이입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고 감정이입이 낮은 아동들이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동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또래괴롭힘을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가해집단의 충동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미연, 2000; 이상균, 1999)와 감정이입이 낮다는 연구(Maeda, 2003)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였다. 즉, 충동성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과 더불어 낮은 감정이입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더욱 부정적인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가해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름을 보여주었는데, 여학생은 개인변인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친구지지와 같은 가족환경과 또래교사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는 남학생은 주변환경을 고려하기 보다는 본인 위주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자기중심적 행동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자신의 상태와 더불어 주변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행동경향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은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할 때 과보호

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므로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온정적인 양육행동이라고 보고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었기에 가해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리라는 추론을 해 본다. 또한 아동기에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규칙과 규율을 배워가는 시기(박성연, 2006, p. 366) 적절한 행동의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도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이 바람직한 행동의 통제를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해행동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해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충동성과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충동성 조절과 아동들의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학생은 개인변인과 더불어 가족과 학교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아동들의 강화경향성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과 학교 보다는 개인변인이 많은 영향을 주어, 충동성이 높고 감정이입이 낮을수록 강화행동이 높아져 자신의 충동적 성향을 잘 조절하며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강화행동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강화행동은 또래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를 부추기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행동으로 촉진되지 않도록 또래에게 받는 심리적 압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남학생과는 달리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영향을 줌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를 애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되면 또래괴롭힘을 부추기는 행동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또래괴롭힘의 방어경향성에는 남학생의 경우 개인변인과 학교환경변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고, 여학생은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및 학교환경변인이 영향을 주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모두 감정이입이 큰 영향을 나타내어, 감정이입능력이 높을수록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적 역할을 많이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서미정, 200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감정이입 및 교사지지가 유의했고, 여학생은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및 감정이입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주었다. 특히 1, 2단계에서 유의하지 않던 죄책감이 3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도덕적 위반과 같은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교사의 지지가 높은 아동들이 피해를 방어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였다. 그러므로 남학생들은 도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생각이나 행동의 조절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증진시켜야 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개인변인만 투입한 1단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방어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3단계에서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충동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있으면서 충동성이 낮은 아동들이 방어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고 충동성이 높은 아동들은 방관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방어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능력 뿐 아니라 충동적인 성향을 낮추주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또래의 압력에 영향을 적게 받는 아동들이 방어를 많이 함에 따라 또래들로부터 자신의 주관과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학생과는 다르게 어머니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 동시에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을 받는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방어행동이 높았다. 이는 여아라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좀 더 제한적이고, 행동에 제약을 많이 두는 양육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다보니 어머니의 바람직한 행동통제를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행동이라고 판단 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방어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리라는 추론을 해 본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우리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구분되어지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과는 다른 바람직한 통제를 사용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육행동의 척도를 개발해야 함을 제시하며, 피해아동을 방어해주는 방어경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차를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넷째, 남학생의 동조경향성에는 개인변인이 많은 영향을 주었고, 여학생은 개인, 가족환경 및 학교환경변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다. 즉, 가해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매우 유사하였는데, 이러한 또래괴롭힘에 대한 동조경향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아의 가해행동을 부추기며 암묵적으로 그 행동을 지지해주는 것이므로, 가해행동 못지않게 심각한 행동임을 인식하여 가해집단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동조성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학생의 동조경향성에는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 및 어머니의 방미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가해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가해행동의 경향성과는 다르게 동조경향성에는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부모갈등, 우정의 질 및 친구지지가 영향을 주어, 자기에 대한 존중

감은 가지고 친한 친구와 긍정적인 우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부모의 갈등을 자주 목격하거나 어머니에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다른 친구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이 동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친구들에게 받지 못한 소속감과 애정의 감정을 가해하는 아동을 도와줌으로써 그 가해아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자 동조행위를 할 수도 있음을 유추해본다. 이에 가해를 동조하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비교하면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섯째, 아동들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학생은 개인변인과 가족환경변인이 많은 영향을 주었고 여학생은 개인, 가족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치심 너무 높으면 피해경향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패나 도덕적 위반,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때 나타나는 지나친 수치심은 열등감을 갖거나 위축행동 또는 공격성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한세영, 2007), 아동들이 수치심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지도해야 가해나 강화 및 동조와 같은 부정적 행동 또는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님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면서 또래의 압력에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를 더 당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구와 부모의 지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키우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부모들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하위체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낮춰주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조절하는 능력 뿐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성 형성과 유지에 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다르게 1단계에서 유의했던 또래압력의 영향력이 2, 3단계로 가면서 사라졌으며, 우정의 질과 충동성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힘이 또래들간의 관계속에서 발생함을 감안해보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의 질이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우정의 질과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여학생에게만 유의한 것은 남학생이 폭넓게 친구들을 사귀는 반면 여학생은 소수의 친구를 사귀더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정옥분, 2005, p. 540) 남학생에 비해 또래들과의 관계가 피해에 더 영향을 많이 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여아들의 피해경향성이 높게 나타나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다. 교사지지의 표준화 계수 β 값이 .09로 작은편에 속하여 큰 의미를 담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에 여학생들은 교사가 더 애정을 갖거나 관심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 있는데, 예비조사때 실시한 면접을 참고해보면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질투심을 느껴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고 지각할 수도 있음을 짐작해본다. 교사의 관심을 과하게 인식하거나 잘못 지각하는 아동은 교사의 관심이 자신의 또래괴롭힘 피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차가 아동들의 피해경향성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학생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여학생은 개인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부모와 또래의 지지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관경향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개인 변인만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에 대해 관심을 안 두려는 성향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행동경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인변인이 방관행동의 경향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변인 중 방관경향성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가해경향성에 영향을 준 충동성과 방어경향성에 영향을 준 자기조절 능력으로, 충동성이 높지만 자기조절을 잘 하는 특성이 방관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관적인 행동들을 하는 아동들은 가해행동 또는 방어행동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를 갖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이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의 중간적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 방관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관행동의 경향성이 방어경향성으로 전환되도록 방관행동을 선택하는 아동들이 특별히 예방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남학생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은 아동들이 방관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남학생에게는 충동성과 자기조절능력과 더불어 감정이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또래에게 받는 심리적 압력을 많이 지각할수록 방관정도가 높게 나타나 또래들이 가해행동에 대한 암묵적 동조나 가해행동을 강화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면 가해행위에 동참할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또래압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아동들은 방어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결과로 미루어 보면, 방관적 행동을 방어적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래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역량강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 개인의 내부에 내재되어 나타나는 중첩되는 행동의 경향성을 인식하여 또래괴롭힘 상황

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경향성을 파악하고 또래괴롭힘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남학생이 감정이입수준이 낮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가해, 강화 및 동조 경향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경향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능력을 함양하고 충동성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의 강화경향성이나 동조경향성은 가해경향성과 비슷하게 충동성과 감정이입 뿐 아니라 어머니의 방입적 양육행동이나 낮은 친구지지가 영향을 주어 성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피해경향성에 높은 수치심과 부모의 낮은 지지가 영향을 주어, 또래괴롭힘으로 부터 피해당하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지지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들은 단짝친구와의 우정의 질이 좋으면 피해경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이 있으면서 낮은 충동성을 보인 아동들은 방어행동을 보였고, 높은 충동성을 보인 아동들은 방관행동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나, 아동들의 자기조절능력과 더불어 충동적인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관행동의 경향성이 피해아를 방어해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인 내적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래괴롭힘이 발생을 부추기는 환경적 변인들은 제거시켜 또래괴롭힘 행위를 감소시키고, 또래괴롭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아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변인들은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서 참여하는 행동경향성과 성에 따른 차이에 입각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래괴롭힘의 상황에 따라 아동들의 행동패턴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내재되어 나타나는 또래괴롭힘의 다양한 행동경향성의 속성에 맞는 예방 및 치료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또래괴롭힘의 유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질적연구를 병행하지 못했다. 예비조사에서 집단면접을 실시했지만 또래괴롭힘의 발생원인이나 특성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을 면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또래괴롭힘의 다양한 행동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아동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그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래괴롭힘의 다양한 행동경향성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여 행동경향성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을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래괴롭힘을 아동이 속한 학급내의 관계로 국한해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의 면접결과에서 도래괴롭힘이 다른 학급간에 발생하거나 선후배간에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나 학교 선후배들과의 관계의 역동성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교육청(2008). **꿈동이의 첫걸음**.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길임,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도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5), 139-151.
 김예성(2000). 초등학생의 도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윤경(1998).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 사회기술 및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2001).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김주연(1996). 청소년기의 도래압력(Peer-Pressure)에 대한 교회교육의 대응. 침례신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김희화(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일반집단, 피해집단 및 가해-피해집단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 119-142.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도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도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307-322.
 도현심, 김선미(2006). 남녀 아동의 도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7-126.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도래경험과 아동의 자기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

23.
 박경수, 손희권(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도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도래 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보경, 한세영, 최미경, 도현심(2004). 도래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45-54.
 박성연(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종원(2005). 초등학생 집단 따돌림 피해행동의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배아영, 이숙(2006).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도래괴롭힘. **대한가정학회지**, 44(4), 101-109.
 변보기, 강석기(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서미정(2006). 도래괴롭힘의 완화요인의 탐색 -주변도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미정, 김경연(2004).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도래 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신유림(2007). 도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와 친구 관계의 관련성: 친구관계망,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75-83.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도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이경남(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내외통제소재와 도래괴롭힘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6, 317-331.
 이경주(1997). 스트레스와 사회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도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혜, 고윤주(2004). 도래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5(4), 1-16.

- 이춘재, 곽금주(1999).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이혜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희경(2003). 문화성향·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4), 1-24.
- 장영애, 이영자(2007).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의 사소통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49-166.
-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은희, 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계학회지**, 22(4), 115-126.
- 조유진(2006).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도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최미경,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 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용민, 이상주(2003).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459-485.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영희, Edwards, C. P.(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세영(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은영(2008).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의 질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kin, S. L., Smith K. S., & DuRant, R. H.(2002). Social skills and attitudes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behavior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6), 448-454.
- Best, J. A., Thomson, S. J., Santi, S. M., Smith, E. A., & Brown, K. S.(1988). Preventing cigarette smoking among school children.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9, 161-201.
- Bewley, B. R., Bland, J. M. & Harris, R.(197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arting of cigarette smoking by primary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eventative Medicine*, 28, 37-44.
- Björkqvist, K., Ekmanm, K., & Lagerspetz, K.(1982). Bullies and victims: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307-313.
- Bosworth, K., & Espelage, D. L.(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341-362.
-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 / 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rockenbrough, K. K.(2001). Peer victimization and bullying preven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Bryant, B.(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arins, R. B., Cari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15-823.
- Finnegan, R. A., Hodges, E. E., & Perry, D. G.(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 Germ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ills, A. E., & Ollendick, T. H.(2002). Peer victimization, global self-worth and anxiety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1), 59-68.
- Gresham, F. M., & Elliot, S. N.(1990).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 Service.
- Hoover, J. H., Oliver, R., & Thomson, K.(1993). Perceived victimization by school bullies: New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2, 76-84.
- Karatzias, A., Power, K. G., & Swanson, V.(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28(1), 45-61.
- Krebs, D.(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Lewis, H. B.(1971). Guilt in obsession and paranoia. In C. E. Izard(Ed.), *Emotions and personality in psychopathology*(pp.399-414). New York: Plenum Press.
- Maeda, R.(2003). Empathy, emotional 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predictor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bully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enesini, B.,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Feudo, G. L.(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6), 515-530.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4(6), 807-814.
- Rigby, K.(1995). The motivation of Australian adolescent schoolchildren to engage in group discussion about bully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6), 773-774.
- Rigby, K., & Slee, P.T.(1993). Dimensioning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 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 Voten, M.(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8(3), 246-258.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Sharabany, R. (1994). Intimate friendship scale: Conceptual underpinning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49-469.
- Sutton J., & Smith, P. K.(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5(2), 97-111.
- Tangney, J. P., & Dearing, R, R. L.(2002). *Shame and Guilt*. NY: Guilford Press.
- Ward, S. K.(2007). Patterns of discrete social skills among incarcerated middle school youth with bullying and victimization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Werner, E. E.(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접 수 일 : 2009년 9월 29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25일